

# “생명나눔으로 따뜻한 세상을”

## 장기기증 운동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는 우엽 스님

최근 생명나눔실천본부에서 따뜻한 소식이 전해졌다. 사고로 머리를 다쳐 서울대 병원에서 뇌사판정을 받았던 故 이용기(34세)가 6월 8일 6명에게 새 생명을 주고 떠난 것이다. 이씨의 신장·간장·췌장·각막 등을 이식받은 환자들은 다시 건강한 삶을 누리게 됐다. 생명나눔 사상이 사회 속에 많이 전파되긴 했지만 자국이 이뤄질 수는 없는 일이지가 이씨가 남기고 간 소중한 생명나눔 행위는 사람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이씨가 이렇게 장기기증을 할 수 있도록, 가족들을 설득하고 이끌어준 사람이 있다. 단양 정암사 주지 우엽 스님이다. 알고 보니 스님이 장기기증 사례를 이끈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스님은 그 동안 몇 차례나 남모르게 뇌사 환자 가족들에게 장기기증에 대해 알리고, 설득해왔다. 스님은 왜 이런 활동을 자발적으로 하게 된 것일까.

우엽 스님은 생명나눔실천본부와 공적으로 아무 상관이 없다. 하지만 1994년 前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이 생명나눔실천본부를 조직할 그 무렵, 스님은 법장 스님의 사상이 좋아 이를 따르기 위해 회원으로 가입했다. 스님은 사후 장기기증, 각막기증, 조직기증 등을 약속하며 장기기증서약서에 서명하기도 했다.

스님이 '생명나눔 사상'에 동참하게 된 데는 이유가 있다. 스님 자신이 신장의 기형으로 인해 점차 신장이 굳어가는 병을 앓고 있어 자주 병원을 드나들다 보니 자연스럽게 장기기증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것이다.

“병원에서 환자들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식받기를 기다리며 하루하루 보내고 있는 분들을 보니 자



장기기증 운동을 이끌어 생명을 살리기 위해 애쓰고 있는 우엽 스님(오른쪽 사진). 스님은 이러한 활동으로 2006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도 받았다.



발적 장기기증 운동이 많이 늘어나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후부터 스님은 사찰 법회에서 신도들을 대상으로 생명나눔 장기기증을 주제로 자주 이야기를 하게 됐다. 생명나눔실천본부로부터 정기적으로 장기기증에 관련된 홍보물을 제공받아 사찰 한쪽에 비치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스님의 사찰 신도들이 하나 둘, 장기기증을 서약하게 됐다. 한 사찰에서 30명의 장기기증서약 회원 등록, 결코 적지 않은 숫자다.

스님의 활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직접 뇌사자 가족들을 찾아가 장기기증을 하도록 설득하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생명나눔'이란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 아무리 죽은 후의 '사체(死體)'라 할지라도 '내 소유'라는 개념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아직 사회 분위기가 전통적으로 매장 풍습을 선호하는데다 장기기증이나 조직기증이 사체 훼손이라 우려하는 가족들의 목소리도 크다. 뇌사자와 식물인간의 개념 혼란도 장기기증

운동에 큰 걸림돌로 작용했다. 그러다 보니 스님도 장기기증을 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었다. 한 번은 뇌사자 가족들로 인해 오른쪽 손을 다치기도 했고, 또 한 번은 장기기증 약속을 받았는데 장기적출 가능 시기를 놓쳐 무산 된 적도 있었다.

“한 두 번 그런 경험을 겪고 나니 장기기증에는 ‘타이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용기씨의 경우에는 가족들을 빨리 설득하는데 주안점을 뒀습니다.”

스님은 가족들을 설득할 때 무작정 장기기증의 사회적 당위성을 내세워 권하하지 않는다. 그들이 심정적으로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보상차원에서 49재는 물론, 기제사까지 무료로 지내주고 있다. 스님은 그것이 그들에 대한 보답이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활동들로 스님은 2006년 '장기기증 감사의 밤' 행사에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장까지 받았다.

스님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또 하나

알게 된 사실이 있다. 스님이 아이들을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 '아이'라고 말하기도 힘든 23살, 20살, 17살 난 아이들은 스님이 정식으로 입양한 '친 자식'들이다. 갓난쟁이 때부터 아이들을 돌보아 스님은 이에 대해 “절집에서는 예전엔 흔한 일이었다”며 그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

사람을 아끼고, 더 많이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는 우엽 스님. 장기기증 캠페인도, 아이들을 키우는 일도 스님에게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자연스러운 일일 뿐이다.

스님이 생명나눔에 다가서는 길을 하나 알려준다.

“타종교와 비교해 숫자가 많고 적고를 떠나 불자들은 흔히 ‘방생’하러 자주 다니잖아요. 주변에 누군가 아플 때 ‘나’와 의 인연이 좋은 좋지 않은 병문안을 가세요. 그러면서 병원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유심히 보세요. 그러다 보면 세상에 아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느낄 것입니다. 우선은 병원에 가보세요. 저는 그것이 ‘방생’이라 생각합니다.” 김강진 기자



## “봉사 통해 행복·건강 찾았죠”

서울 경희의료원 공급실에는 목소리가 예쁜 봉사자가 있다. 상냥한 목소리로 사근사근 이야기하는 것도 이 봉사자의 특징이지만 의료원에서 필요한 숙음을 하나하나 정성껏 만들어 내는 손길과 마음이야말로 그의 가장 큰 매력이다. 환자를 직접 돌보는 마음으로 그가 준비하는 재료들은 간호사들에게 ‘최고’라는 평을 듣게 된다. 이 봉사자의 이름은 김용수씨(70·사진)씨다.

### 봉사자 김용수씨



김씨가 봉사활동을 시작한 것은 1997년, 화성 노인복지시설 자제정사에서 첫발을 내디뎠다. 그곳에서 그는 노인 목욕 봉사부터 시행했다. 치매와 중풍으로 고생하는 노인들을 씻기는 일이 그렇게 녹록치 않았다.

“아유, 처음엔 견디기 힘들었죠. 누구나 그래요. 그런데 한 석 달 지났을까요, 그랬더니 신기하게 시설에서 나면 냄새도 더 이상 의식이 안 되는 거 있죠.”

그가 그렇게 적응이 되어 간 데는 할머니들의 따스한 정과 함께 봉사활동을 했던 ‘백련팀’의 팀워크가 한몫했다고 한다. 그리고 보람, 할머니들을 씻기는데, 자신이 시원해지던 그 기분을 김씨는 지금도 잊지 못한다고 한다. 그러면서 “지금도 그 분을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며 손수건을 찾는다. 그러면서 그는 말한다.

“그곳 할머니들이야말로 제겐 선지사이 나 다름 없었어요. 정말 많이 배웠으니까요. 할머니들 이것을 봉사 과 직이 많이 들었는데, 그곳 봉사들 그 만뒤서 정말 아쉬워요.”

“그도 이전 70대의 나이. 목욕봉사는 벅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2006년부터는 경희의료원으로 봉사처를 바꿨다. 몸이 건강할 때 더 많이 움직이고 더 나누고 싶어서 그는 봉사를 그만둘 수는 없었다고 말한다. 봉사를 이렇게 즐기는 김씨, 봉사를 만나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을까. 젊은 김씨는 40대 중반의 어느 날 갑자기 갑상선 질환으로 위기를 맞았다. 이 때문에 1985년과 1988년 두 차례나 큰 수술을 받아야 했다.

“친구들도 제가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정말 기적처럼 살아났지요.” 그렇게 긴 투병생활을 끝내고 아직 몸이 완전히 않을 때였다. 일간지를 보다 갑자기 눈에 띄는 광고를 발견했다. 아주 조그만 광고였는데, 조계종 사회복지재

단에서 봉사 교육생을 모집한다는 것이었다. 답답하게 집에 있으니 나가보자, 그것이 이렇게 봉사의 끈이 될 줄이야 그 때는 몰랐다.

김씨는 ‘봉사 예찬론자’다. 봉사로 인해 그는 건강을 되찾았다고 생각한다. 젊었을 때는 그렇게 아팠던 그가, 이제는 친구들 중 가장 건강하다고 한다. 그는

이것을 봉사 가 준 선물이 라 말한다. 행복한 마음 과 땀흘리는 기쁨, 그리고

불자로서의 마음 챙김, 모두 봉사를 통해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요즘 길을 걷기도 불편해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러면 저는 ‘야, 봉사하면 다 좋아져’라고 말해요.”

그는 봉사를 하면 마음이 고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 좋단다. 이제 봉사활동을 시작한지 10년이 넘는 김씨, 봉사활동 참여 불자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만, 진심을 가진 봉사자가 더 많아졌으면 하는 것이 그의 더 큰 바람이다.

“봉사는 자신, 그리고 봉사처와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왕 하는 것,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이 좋지요. 봉사를 겁낼 필요는 없습니다. 하다 보면 책임감도 생기고 즐거움도 늘어납니다. 봉사는 그런 것입니다.” 글·사진=김강진 기자

### 갑상선 질환 이기고 봉사활동 시작

### “70대 나이에 봉사 열정은 여전”



젓소에게 우유를 주고 있는 아동과 봉사자.

## “우유 짜고 치즈 만들고...신나는 목장의 하루”

### 승가원 장애아동·서울우유 임직원 목장체험 캠프

사회복지법인 승가원 산하 승가원장애아동시설(원장 동욱)과 (주)서울우유가 함께 6월 17~18일 파주 모산목장에서 1박 2일 캠프를 실시했다. 승가원장애아동시설 조성진의 31명 의 장애아동과 서울우유 임직원 32명

이 함께 한 이번 캠프는 KBS 사랑의 가족이 주최하고 승가원장애아동시설이 주관했다.

처음으로 목장을 방문한 아동들은 젓소를 보고 무서워하기도 했지만 서울우유 봉사자와 함께 해서 그런지

이내 무서움을 떨쳐버리고 젓소 가까이 다가가 쓰다듬기도 하고 우유를 주는 등 친근감을 표시했다.

승가원 아동들과 서울우유 임직원들은 이후에도 함께 젓소 우유 먹이기, 우유 짜기, 치즈 만들기, 아이스크림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을 펼쳤다.

김강진 기자

## 학 고

동산불교대학·동산반야회 前이사장 金在日 法師께서 宿患으로 2008년 6월 18일 12시 17분 서울대학병원에서 別世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 빈 소 : 서울대학병원 장례식장 206호
- 발인일시 : 2008년 6월 20일 08시 30분
- 장 지 : 벽제승화원
- 연 락 처 : 동산불교대학 장의봉사단 ☎ 02)2072-2022

- |         |              |       |
|---------|--------------|-------|
| • 장의위원장 | 동산불교대학 이사장   | 安 東 臺 |
| • 장의위원  | 동산반야회 신도회장   | 李 鍾 賢 |
| • 장의위원  | 붓다클럽 총재      | 李 相 雨 |
| • 장의위원  | 동산불교대학 총학생회장 | 金 德 潤 |
| • 장의위원  | 동산불교대학 총동문회장 | 李 和 烈 |
| • 장의위원  | 동산불교법사단장     | 林 元 鎬 |
| • 장의위원  | 동산포교사단장      | 車 垠 汕 |
| • 장의위원  | 동산불교대학원회장    | 姜 榮 吉 |

미망인 전 연 화  
아 들 김 동 선  
딸 김 수 미  
사 위 김 건 영

## 동양불교조계종 창종취지문

### 삼보에 귀의하옵고

금번 저희가 고귀하고 걸림없이 살다가신 원효선사의 덕행을 기리고 우리 후학들의 이정표로 삼고저 뜻있는 분들의 고견을 받들어 동양불교조계종이란 이름을 세상에 내어놓게 되었습니다.

세간과 출세간을 뛰어넘고 진여와 생멸을 회통시키신 원효선사의 남기신 뜻은 후학들에게 인식의 지평을 확장시키는 것에 머물지 않고 시대를 관통하는 화쟁의 정신을 실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문화전통과 그 유산이 오늘날 정체성이 흐려지고 교계 내의 자종과 우월주의의 경향으로 부처님의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사유가 왜곡되어있는 것이 분명한 현실입니다. 이에 동양불교조계종에서는 출세간을 아우르는 화회(和會)의 정신을 오늘에 되살리고자 하는 취지로 창종(創宗)의 뜻을 내외에 알리는 바입니다. 관심있는 스님들의 동참을 바랍니다.

☎ 창종예정일 佛記 2552년 10월 중 佛記 2552년 6월 20일  
☎ 사무처 : (055)333-7678 (010-5521-7677) 창종준비위원 覺性의 10인 합장